

충남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강 영 주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yongju_k@cdi.re.kr)

목 차

< 요약 >

- I. 문제의 제기
- II. 충남 부품소재 산업현황
- III. 충남 농공단지 현황
- IV. 현행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한계
- V. 충남 부품소재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요 약》

- 충남의 소재 부품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IT-디스플레이 산업의 대규모 기업 집적 강화와 더불어
- 종업원 규모로 전국의 6.3%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핵심기술 및 부품의 해외 및 수도권 지역 의존도가 높아 획기적인 발전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지역내의 소재부품산업 성장에 따라 충남의 농공단지에도 다수의 관련기업이 입주를 강화하고 있으나 소재부품산업 전문단지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어 산업발전 파급효과가 적음
- 이에 따라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내의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의 마련이 시급함
- 2008년 2/4분기 현재 충남 도내에는 79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8,792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고 99.5%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 총 846개 업체 중 기계, 석유화학, 운송장비, 전기전자 등 부품소재 기업은 총 입주기업의 66%를 차지함
- 농공단지내의 기업은 2008년 2/4분기에만 1조8천억 원을 생산(수출 3억74백만 불)하였으며, 총 23,92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음. 특히 현지인의 고용비율(58%)이 높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보이나, 최근('07, '08년) 휴폐업 및 부도의 발생건수가 상당수(12개) 증가하였음
- 현행 농공단지는 첫째, 인프라 부분에서 단지조성비 등의 지원 부족, 입지제한 기반시설 노후화, 적은 규모, 기반인프라 미흡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 둘째 입주기업 지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축소,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부족, 기업관련 규제, 산학연 협력체계 미흡, 인적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 그 외에도, 전문성과 특화성이 부족하고, 친환경성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위목표와 산업활성화 목표가 상충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충남 농공단지의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에서 부품소재 전문단지를 제외하는 등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단지의 조성을 확대하고
- 둘째, 농공단지 관리 담당자 및 입주기업 교육훈련을 내용 및 기간에서 강화함과 동시에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입주 기업의 필요정보가 즉시 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셋째, 규모의 한계로 혜택을 보지 못하던 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단지를 묶어 점선면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공단지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고 부품소재 산업교류회를 조직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지역특화상품 제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소재부품 단지의 경우 농어촌 전문단지도 지역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기업에만 국한되던 것을 확대하여 고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업원에 대한 지역 이주비 지원, 학자금 지원,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I. 문제의 제기

- 농공단지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 2006년 기준으로 생산 29조원, 수출 61억불, 고용 11만6천명 등으로 농어촌 경제 및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

-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입주기업의 영세성, 관리시스템 및 산학연 연계체계 미흡 등으로 산업단지로서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
- 충남의 소재부품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IT-디스플레이 산업의 대규모 기업 집적 강화와 더불어
- 종업원 규모로 전국의 6.3%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핵심부품 및 기술의 역외 의존도가 높아 획기적인 발전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지역내의 소재 부품 산업 성장에 따라 충남의 농공단지에도 다수의 관련기업이 입주를 강화하고 있으나 소재 부품 산업 전문단지 등 특별한 지원 대책이 없어 산업발전 파급효과 적음
- 이에 따라 농공단지가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내의 소재부품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농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Ⅱ. 충남 부품소재 산업 현황

1. 일반현황

- 충남은 전국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의 3.5%(사업체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 또한 3.5%를 차지하고 있음
-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업체의 규모가 전국평균에 비해 큰 것이 특징임
- 부품소재 산업 중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이 전국대비 비중(12%)이 가장 높고, 다음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9.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9.0%),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9%)의 순임

전국대비 충남의 부품소재산업 비중 (종업원수 기준, 명)

구 분	전국	충남 (사업체수기준 사, %)		충남 (종사자수기준 명, %)	
전산업	15,435,766	127,547	4.0	604,737	3.9
광업 및 제조업(C~D)	2,925,955	4,231	3.5	176,458	6.0
부품소재산업	2,437,695	3,271	3.5	153,972	6.3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41,979	204	2.4	4,697	3.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9,816	123	4.0	4,001	6.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34,825	293	6.8	12,196	9.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4,432	397	4.3	13,282	6.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87,037	358	8.4	10,421	12.0
제 1차 금속산업	117,484	117	3.7	6,607	5.6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59,938	390	2.6	9,783	3.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37,405	509	3.1	17,068	5.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6,794	16	1.9	1,150	4.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143,097	169	2.6	8,989	6.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95,545	141	2.7	35,323	8.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62,174	69	2.1	2,031	3.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63,867	354	8.4	24,856	9.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1,312	17	1.3	412	0.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81,990	114	1.8	3,156	3.8

출처: KOSIS 2006

2. 산업특화 현황

- 특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이 2.14로 가장 높고,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3.06),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2.28)의 순임
- 특화도 분석결과 충남에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련 부품 산업과 LCD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산업,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비금속광물제품과 화학제품제조업 등이 특화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부품소재산업 LQ지수(2006)

구 분	충남	
	사업체수	종업원수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0.604995	0.84441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012872	1.707312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732192	2.30891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99272	1.65835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136942	3.056097
제 1차 금속산업	0.932796	1.43544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0.65014	0.960647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78313	1.29119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482999	1.095524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0.669466	1.60340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0.674143	2.27941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0.541576	0.8338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36763	2.40440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32857	0.08668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464616	0.982512

출처: KOSIS 2006데이터를 토대로 분석

3. 특화산업분야와 소재부품산업과의 역학관계

□ IT-디스플레이 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클러스터의 주축을 이루는 선도기업 (Leading Company)인 삼성전자와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이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업과 방송수신기 및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등이 천안과 아산에 주로 집적하고 있음

IT-디스플레이산업 주요 집적지 및 생산품 현황

구분	산업단지	주요생산품
직산업	천안밸리	· 무선통신기기검사장비, 반도체외관검사장비, 휴대폰관련장비, FA 시스템, 반도체관련 장비, 광케이블, 광송수신모듈, 석영유리, 석영 웨이퍼, 나노복합재료, 광 반도체 제품 개발, 휴대폰, IMT2000 생산자동화장비, 반도체검사장비, GSA SCRUBBER, GAS PURIFIER, WELDED BELLOWS, 반도체 및-LCD 제조장치, TFT LCD장비
	개별입지	· 반도체 검사장비, 전자부품 검사장비, 자동화설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반도체설비, PVC가공, LCD 모니터, LCD TV, 멀티미디어 STB, 인쇄회로판, 반도체 부품, 산업 기계 부품, 휴대폰 칩, 기계부품, 계측기부품
업성동 차업동	제2지방 산업단지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개별입지	· 반도체 제조장치, 스피너, 스크러버, 스펀처, LCD제조장치, 식가장비, 세정장비, 트랙장비, 반도체검사장비, 메모리 테스터, 반도체부품,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테스트 보드, 반도체검사용 IC소켓, 화학기상증착장비 등
백석동	제3지방 산업단지	· TFT-LCD, 전지, PDP
	백석 농공단지	· 반도체메모리모듈, 반도체부품
	외국인 전용단지	· 인쇄회로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축전지 및 일차전지
	개별입지	· TCP, COF, 백라이트유닛, LCD제조 장비, 반도체표면실장형패키지, 플래시메모리카드, IC 테스터, 반도체 드라이 펌프, 노광기, 액정화면검사장비, 반도체약품, 반도체 금형
성성동	개별입지	· 포토마스크, 리드프레임, COF, LCD모니터, 휴대폰 배터리, LCD모니터, 칼라필터
탕정면	탕정지방 산업단지	· PDP, TFT-LCD용 기판유리
	개별입지	· 반도체제어시스템, 모듈실장테스터, PCB납땜조립, LCD, 반도체 금형, 반도체장비, 웨이퍼
음봉면	개별입지	· 모바일디스크, 반도체 패키지, LCD세정장비, IC실핑트레이, 캐피러리, IGBT모듈, 다이오드모듈, IPM, IC칩트레이, 반도체장비금형
배방면	개별입지	· 마이크로 캡슐, 로직테스트핸들러, 인스펙션핸들러, 덤핑핸들러, 자동리와인더, 인쇄회로기판(PCB)조립, 반도체 금형 부품, 반도체 부품 금형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 2005.

□ 자동차 · 부품산업

- 2004년 현재 충남의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업체로는 아산의 현대자동차(30만대의 완성차와 28만대의 엔진 생산능력 보유), 서산의 동희오토(연간 30만대 규모)가 있으며, 이들이 연간 15만대의 완성차를 생산 수출.

충남지역 완성차업체의 현황

업체명	생산 능력 (만대/년)	전국 대비 구성비(%)	위 치	공단규모 (만평)	비고
현대자동차	29만대/년	6.3	아산시	55	소나타, 그랜저TG
동희오토	15만대/년	3.2	서산시	23	모닝
기아자동차	(50만대/년)	-	서산시	118	이전 예정
합 계	44만대/년 (94만대/년)	9.5 (19.1)			

주 : 충남지역의 완성차 생산능력은 기아자동차 서산공장 입주시 2005년 한국의 생산능력 471만대/년의 19.1% 수준임

출처 : 충남전략산업기획단,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기술로드맵, 2005.

-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국의 30%가 충남 · 경기 지역내에 집적을 형성하고 있고 그 중 충남은 천안과 아산에 70%이상이 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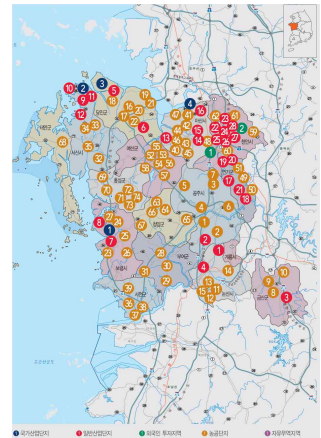
Ⅲ. 충남 농공단지 현황

1. 충청남도내 농공단지 일반현황

- 도내에는 79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지정면적 12,166천㎡, 분양면적 8,792천㎡이며 846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음

충남농공단지 현황

구 분	단위	계	국가	일반	농공	기타
단 지 수	개소	120	5	34	79	2
지정면적	천㎡	104,469	36,764	46,507	12,166	9,032
분양면적	천㎡	50,182	10,542	22,672	8,792	8,176
입주기업수	개소	1,371	90	418	846	17
고용인원	명	76,086	3,668	45,142	23,802	3,474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 19페이지 확대 그림 참조

- 79개 농공단지 중 2008년 2/4분기 현재 조성완료 69개(10,858천㎡), 조성중인 농공단지 4개(413천㎡), 미착공 6개(895천㎡)임
- 2008년 2/4분기 현재 지정면적 12,166천㎡중 11,135천㎡가 조성되었으며, 총 분양대상면적 8,834천㎡중 8,792천㎡가 분양되어 99.5%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음

2. 업종별 입주 현황

- 총 846개 업체 중 기계 142개, 석유화학 127개, 운송장비 102개, 전기전자 96개, 비금속 61개, 철강 29개사로 부품소재기업은 총 입주 기업의 66%를 차지함
- 기타 업종은 음식료 91개, 섬유 의복 47개, 목재종이 27개, 기타 167개, 비제조 2개 등임
- 지역별로는 홍성(88%), 아산(86%), 예산(80%), 서산(79%) 등이 소재 부품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시군별	단지	계	음식 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 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부품소재 산업비중	기타	비제 조
계	79	846	91	47	27	127	61	29	142	96	102	66%	122	2
천안시	4	107	5	6	1	5	3	3	15	32	0	54%	37	0
공주시	8	57	4	7	6	18	9	2	4	4	2	68%	0	1
보령시	6	77	5	11	2	9	15	0	1	0	2	35%	32	0
아산시	9	51	5	1	1	13	3	3	14	6	5	86%	0	0
서산시	4	39	2	3	1	6	5	0	9	4	7	79%	2	0
논산시	6	42	8	7	0	2	1	2	5	5	1	38%	11	0
금산군	3	77	17	4	6	17	7	0	20	6	0	65%	0	0
연기군	3	28	1	1	2	5	0	0	2	13	1	75%	3	0
부여군	5	25	7	0	0	5	4	0	5	1	2	68%	0	1
서천군	4	64	13	1	4	9	9	0	17	2	9	72%	0	0
청양군	5	48	10	1	1	14	3	1	10	4	1	69%	3	0
홍성군	7	77	2	2	0	3	1	3	17	8	36	88%	5	0
예산군	7	69	4	0	2	15	0	5	7	4	24	80%	8	0
태안군	1	17	4	0	0	2	1	2	2	2	2	65%	2	0
당진군	7	68	4	3	1	4	0	8	14	5	10	60%	19	0

3. 고용 및 생산·수출 현황

- 농공단지내의 기업에는 총 23,925명의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현지인은 13,913명(58%), 외지인 8,198명, 외국인 1,691명으로 2006년에 비하여 현지인의 비중이 줄고, 외지인 및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였음.
- 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도내 산업단지 외국인 노동자의 7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고용현황

(단위:명)

연도별		2007.2/4					2008.2/4				
구분		계	국가	일반	농공	기타	계	국가	일반	농공	기타
계		74,840	6,778	41,930	22,625	3,507	76,147	3,668	45,142	23,925	3,474
성별	남	53,235	5,331	29,251	15,426	3,227	55,180	3,377	32,223	16,394	3,186
	여	21,605	1,447	12,679	7,199	280	21,029	291	12,919	7,531	288
출신지별	현지인	48,993	5,261	29,079	13,749	904	49,285	2,144	32,335	13,913	893
	외지인	24,055	1,481	12,348	7,628	2,598	24,506	1,489	12,244	8,198	2,575
	외국인	1,792	36	503	1,248	5	2,295	35	563	1,691	6

- 2008년 2/4분기 농공단지 내 기업들의 생산액은 1조8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수출은 3억74백만 불이었음.

생산 및 수출현황

구분		생산실적(백만원)		수출실적(천불)	
		당분기	누계	당분기	누계
2008.2/4	계	12,734,077	23,945,095	10,988,731	20,972,793
	국가	1,210,200	2,198,400	294,000	412,000
	일반	3,243,432	6,333,968	6,966,225	14,190,703
	농공	1,805,923	3,413,278	374,763	719,658
	기타	6,474,522	11,999,449	3,353,743	5,650,432

자료: 충청남도 홈페이지

4. 가동 및 휴·폐업 현황

- 입주업체 총 846개 기업 중 휴·폐업 및 부도 32개, 건축 중인 기업 37개, 미착공 54개를 제외한 723개 업체가 가동 중임
- 휴·폐업 및 부도의 발생은 06년 이전까지 1~2개 이던 것이 2007년 이후 12개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음

휴폐업 및 부도년도

구 분		계	2002이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40	1	1	2	2	4	14	16
단지별	국 가	0	0	0	0	0	0	0	0
	일 반	7	0	0	0	0	2	1	4
	농 공	32	1	1	2	2	2	12	12
	기 타	1	0	0	0	0	0	1	0

- 2008년 2/4분기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휴폐업이나 부도한 업체는 휴업 19개, 폐업 4개, 부도 9개로 총 32개 업체임. 사유별로는 자금부족이 34.4%, 판매부진 18.8%, 기타 46.9%임

휴폐업 및 부도업체현황

연도별		2007.2/4					2008.2/4				
구분		계	국가	일반	농공	기타	계	국가	일반	농공	기타
계		36	0	9	27	0	40	0	7	32	1
형태별	휴업	22	0	8	14	0	24	0	5	19	0
	폐업	2	0	0	2	0	6	0	1	4	1
	부도	12	0	1	11	0	10	0	1	9	0
사유별	자금부족	12	0	1	11	0	12	0	1	11	0
	(%)	33.3	0.0	11.1	40.7	0.0	30.0	0.0	14.3	34.4	0.0
	판매부진	8	0	0	8	0	7	0	1	6	0
	(%)	22.2	0.0	0.0	29.6	0.0	17.5	0.0	14.3	18.8	0.0
	경영부실	3	0	3	0	0	0	0	0	0	0
	(%)	8.3	0.0	33.3	0.0	0.0	0.0	0.0	0.0	0.0	0.0
	모기업부도	1	0	0	1	0	0	0	0	0	0
	(%)	2.8	0.0	0.0	3.7	0.0	0.0	0.0	0.0	0.0	0.0
기타	기타	12	0	5	7	0	21	0	5	15	1
	(%)	33.3	0.0	55.6	25.9	0.0	52.5	0.0	71.4	46.9	0.0

- 휴폐업 및 부도업체는 천안 10, 논산 5, 청양 5, 홍성4, 아산 4, 예산 3 등의 순으로 나타남

IV. 현행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한계

1. 단지조성

□ 단지 조성비 (농림부, 균특회계)

- 낙후지역 및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별·단지 유형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 차이가 크지 않아 낙후지역 및 지역특화단지 개발의 유인 효과가 미흡*

* 낙후도 기준에 따른 농어촌별 지정은 전체 면적의 20%인 일반농어촌이 26%(90개 단지), 40%인 추가지원농어촌이 49%(170개 단지), 40%인 우선지원농어촌이 25%(85개 단지)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3.3058㎡)

구 분	일반단지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일반농어촌	추가·우선농어촌
· 국비보조	15	50	70	30	70
· 국비용자	10	20	20	10	20
· 지방비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출처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13조

□ 공동 폐수처리장 시설비 (환경부, 환특회계)

- 농공단지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이 적어 입주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국가단지 및 일반단지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은 100% 보조, 수도권 중 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는 50% 보조 및 50% 원인가 부담, 접경지역은 100% 보조

폐수처리장 지원 기준

(단위 : %)

합 계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보 조	응 자	보 조	응 자	보 조
100	50	50	70	30	100

출처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37조

□ 입지제한

- 신규농공단지 개발과 관련, 지나친 입지제한 규제로 탄력적 산업입지 공급에 한계
-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면적 제한(133만㎡), 임업진흥권역 등에 대한 입지 제한 등 완화 필요

□ 기반시설의 노후화

-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단지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 조성 완료 단지 및 입주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 부족
 - '90년대에 조성된 단지 등은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으나,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애로

□ 규모의 한계

- 농공단지는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11만 5천㎡ 정도의 소규모로 동일지역 내 유사업종의 밀집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 어려움

□ 기반 인프라 미흡

- 대도시 근접성이 약하고 공업용수시설, 산업용 가스시설, 주차장,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미흡

2. 입주기업 지원

□ 금융지원 (산자부, 공자기금)

- 정책자금 지원 축소 정책에 따라 매년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

농공단지 진흥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86~'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예상
재정 차입금	9,209	534	232	580	530	400	300	200	100	93	74.4	59.5
지원 총액*	14,420	960	643	629	530	530	600	700	750	600	500	450
업체수	6,030	471	240	213	214	203	204	211	152	102	100	90

* 중도 회수금의 재 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

□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미흡

- 관리의 주체가 기초단체인 시·군에 있고, 지정에서 조성까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미흡
- 관리 전담인력 부족 및 전문성 미흡으로 입주기업 지원업무 수행이 곤란

□ 단지 내 기업관련 규제

- 07년 산업단지 내 기업관련 규제는 1,057건으로 전체의 20.9%차지

□ 산학연 협력체계 부족

- 기존 농공단지 대부분이 낙후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산·학·연 협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

* 입주기업 산학협력 활용경험(전국) : 국가단지(59.6%), 농공단지(18.2%)

□ 인적자원의 공급

- 농공단지가 입지해있는 지역 주민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노동력 제공이 어려움

3. 기타

□ 전문성, 특화성 미흡

- 분양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업종을 유치한 결과, 특화 및 집적효과가 미흡하고, 향토자원의 연계 활용이 부족
 - 전국 농공단지의 90%이상이 일반단지임

□ 상위목표와의 상충으로 인한 정책구조상 한계

- 친환경성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상위목표와 산업활성화의 상충

V. 충남 부품소재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

전략 1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①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 부품소재 전문단지는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면적(133만㎡→166만㎡ 확대예정*)에서 제외하여 조성폭을 확대

* 제2차 기업환경개선대책 발표('07.6.25) 사항으로,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6조 개정 필요

② 일반단지의 소재부품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전환절차 간소화

- 농공단지의 종류* 전환시 단지 준공전에는 개발실시계획, 준공후에는 관리기본계획만 변경토록 하여 전환 절차 간소화**할 필요 있음
- 또한 종류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단지와 특화단지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하고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음

* 일반단지,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상호간의 변경

**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8조 개정 필요

현재의 농공단지 유형

- **일반단지** : 입주업종에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 여러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단지
- **전문단지** : 동일·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 기준으로 3/4 이상이 되는 단지
- **지역특화단지** :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

전문단지 및 특화농공단지 조성안 수정안

구분	전문단지	특화단지
사업추진주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단지조성, 기업유치	해당지방자치단체	해당지방자치단체
단지형태	광역지자체 및 광역권 산업과 연계된 전문 소재부품단지	향토산업 지연산업 관련 기업 입지
조성/운영방법	소재부품 전문단지 클러스터 운영	개별 단지 지원 강화

주 : 권오상(08.6 농공단지 포럼)의 안을 본인 일부 수정함

출처 : 농공단지전략포럼 세미나 자료, 2008. 6.

③ 입주제한업종 및 유치업종 등의 합리적 조정

- 현행 농공단지 내 입주제한 업종(현행 63개)을 환경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08년 상반기)하고 유치업종을 한국 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2단위)로 지정토록 하여, 기업유치에 탄력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 부품소재 전문단지 유치업종을 제한하는 규제보다는 특정 업종의 유치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입주제한은 전면 철폐해야 할 것임
 - 인센티브 제공 업체 구분은 지역산업에 맞추어 지정토록 하고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로 지정

* 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6조 개정

전략 2

부품소재 전문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① 농공단지 담당자, 농공단지 입주기업 교육 훈련

- 농공단지 관리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정기적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1박 2일, 연 2회의 한정된 교육으로는 전문성 향상 어려움. 따라서 전문교육기관에 소재부품 산업 및 기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신설하고, 1주일 단위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

* 전국 광역시·도 농공단지 담당관 워크숍('07.5.30 ~ 6.1) 및 전국 산업단지 담당자 교육('07.10.29 ~ 10.31) 기 시범 실시

** 산단공과 중진공이 관련 예산(농공단지 부대사업비, 지역혁신교육비)을 확보하여 산단공은 단지개발 및 관리, 중진공은 입주기업 지원 부문 담당 ('08년 : 2회실시)

②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통합정보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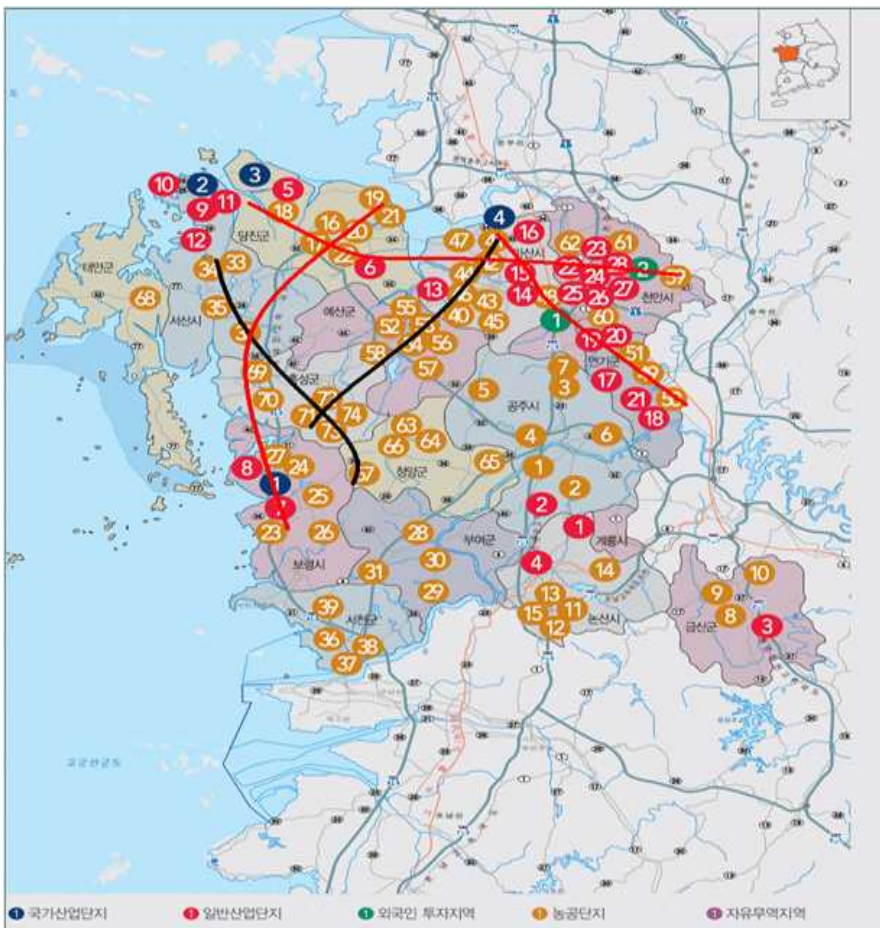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상담 및 자문할 수 있는 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부품소재 전문 농공단지 특화된 정보 제공
- 기 구축된 산학연 통합정보망(www.e-cluster.net, 산단공)에 농공단지 정보를 추가하여 구축

전략 3

부품소재 전문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① 산·학·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

- 기 시행중인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농공단지는 규모가 영세하여 개별 농공단지의 소재부품 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어려우므로, 농공단지 신규 조성시 점선면 전략 구사



○ 소재부품 전문단지 클러스터 구축

- 2~3개의 인접 시·군을 묶어서 10여개의 농공단지를 관리
- 관리주체 : 농공단지 비즈니스센터 (광역지자체 산하*)

* TP 등 운영상의 한계(공동출자기관의 과다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2~3개 시군의 조정, 지역교통망과의 연계를 위해 광역지자체 산하가 타당

○ 소재부품 기업, 대학, 행정기관 간 「부품소재 산업교류회」 조직 및 활성화 도모

- 교류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소재부품산업 전문단지 활성화 사업을 교류회의 추천을 통하도록 조치

②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 소재부품 전문단지 경영·기술 고조고도화 진단 사업 및 경영연수* 실시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함께 소재부품 전문단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소재부품 페어(제품 전시, 판매, 비즈니스 상담회 등 개최)를 실시하고 국제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촉진

* 중진공 경영·기술 구조구도화 진단 사업 및 경영연수를 농공단지 입주 영세기업까지 확대하여 활용

전략 4

부품소재 지역특화 지원

① 지역특화단지 제도 개선

- 소재부품 기업체의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전문단지 지정하고 업체 수(4개 이상) 요건 등을 비롯한 각종 요건 완화.
- 소재부품 전문단지 사전 지정제 도입
- 소재부품 전문단지의 경우 우선 농어촌 전문단지/지역특화단지 뿐 아니라 일반농어촌의 전문단지도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지원(현행 7만원/3.3㎡당) 확대 실시

② 지역특화상품 제조업체 지원

- 소재부품 전문단지의 경우 역내 부존자원을 제품원료로 50%이상 사용하는 기업 입주 우선권 부여 및 각종 자금 지원 우대 실시
- 소재부품 전문단지의 경우 전문인력 고용이 필요하므로 현지인 50%이상 고용 입주 우선권은 철폐하고, 인력 고용을 위한 자금 우선 지원

전략 5

부품소재 전문농공단지 종사자 지원 대책

① 지역 이주비 지원

- 전문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의 지역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주비 지원*

* 분양아파트 청약 우선권,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② 자녀 학자금 지원

- 전문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의 자녀 학자금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지원

③ 1가구 2주택 보유 대상자 제외

- 도세 중과세 대상자 제외

④ 각종 세제 지원

- 이전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

강 영 주, yongju_k@cdi.re.kr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책임연구원

Tel. 041-840-1164